

디자인계의 다양한 입장과 이슈를 공론화하다: 디자인 협회·단체의 쇄신

1993

디자인진흥원사

- 제8대 유효민 원장 취임
- 산업디자인 원년 및 산업디자인주간 선포
- 제30회 무역의 날, 수출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 중소기업포장개발 종합상담실 설치

한국 디자인사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창립
- 디자인 관련 단체 5개 사단법인으로 통합
- 삼성 신경영 선언 및 디변경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출시
- 위니아 김치냉장고 딥체 출시

한국 사회사

-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출범
- 「서편제」 개봉
-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 우루과이아운드 협상 타결

우리나라 디자인 관련 단체의 역사는 1945년 창립된 대한산업미술가협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생겨난 때는 196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61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한국응용미술가협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1965년에는 한국선전미술협회와 한국공예가회, 1968년에는 한국상업사진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 1969년에는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가 연이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1966년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가 개최되며 공예를 그 뿐으로 하는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시각, 공업, 공예 등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디자이너들은 분야별로 단체를 조직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디자인을 통한 사회 기여에 나섰다.

1970년대에도 민간 차원에서 여러 디자인 관련 단체의 결성이 이어졌다. 그중 중요한 협회로 1972년 설립된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와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1973년에 설립된 한국공예가협회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산업디자인 전문 단체로,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 교육을 받은 8명의 디자이너에 의해 발족됐다. 초기에 이들은 국내에 생

소했던 산업디자인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전시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는 시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으며, 국내 유일의 공예가들 모임이었던 한국공예가협회는 전통 공예를 발판으로 한국 현대 공예를 연구하고 개발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한편, 학문적 차원에서도 1978년 ‘디자인에 관한 여러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정보 교환 및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에 따른 교육적인 자세, 나아가 인류 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한국디자인학회가 발족했다.

이러한 디자인 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1980년대에 더욱 전문화, 세분화되며 꾸준히 지속되며 디자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과 이슈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한 분야에서도 여러 개가 공존할 정도로 여러 곳이 생겨나며 해당 분야의 역량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응집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1980년대를 거치며 어느덧 7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난 이들 디자인 협회·단체들은 1990년대 들어 디자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인 혁신을 꾀하며, 때로는 통합을 통해 쇄신을 이루기도 했다.

1993년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KSID), 한국 디자이너협의회 산하의 공업디자이너협회(INDDA) 및 한국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KIDCA)가 통합해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KAID)가 설립된 것이나, 한국시각디자인협회 (KSVD)와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KOGDA)가 통합해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가 출범한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업자원부는 각 분야별로 통합된 5개 단체⁵³에 대해 설립 허가를 하고 각 단체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나갔다. 이어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KODIA, 1994),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현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KFDA)가 창립(1995)했으며 ‘실용’에 방점이 찍힌 디자인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던 한국디자인학회 역시 1994년 KIDP에서 재발족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KIDP와 함께, 우리나라 디자인계를 이끌어 오면서 현재까지도 디자인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